

사계절 무더위와 환상적인 골프코스 향상을 기대합니다.

###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당첨 후회없다)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무천시 9월 이후 특별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 ■ 1위 SK와 6위 KIA 차이점은?



### 승리 (76승) 중 역전승 41%

### 패배 (65패) 중 역전패 40%

#### 승패를 가른 '근성의 힘'

4강을 목표로 2008시즌을 맞이한 KIA 타이거즈가 5할을 밀도는 승률(20일 현재 0.449)로 6위에 머물고 있다. 반면 같은 붉은 색 유니폼을 입고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두 SK 와이번스는 당초 목표였던 75승을 넘어 80승 고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20일 현재 KIA가 SK를 상대로 거둔 시즌 전적은 3승 13패. 이중 역전승은 단 1승, 역전패는 6차례나 당했다. SK의 기세에 4강행 발목이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시즌 SK는 연승가도를 달리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다. 하반기에도 17승 5패로 승승장구한 SK는 20일 현재 76승을 수확하며 KIA와 25.5게임차를 유지하고 있다. SK의 고공행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나오는 '승부 뒤집기'다.

올 시즌 SK가 거둔 76승 중 31승이 역전승으로 전체 승수의 41%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29일 LG와의 시즌 첫 경기부터 SK는 '릿심'을 발휘했다. 3회초까지 0-4로 뒤지고 있던 SK는 이날 연장 11회

까지 가는 접전 끝에 5-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게다가 SK는 지난 14일 한화를 역전승의 제물로 삼은 이후 두산, LG, 우리를 상대로 5경기 연속 연전극을 펼치는 등 '역전의 명수'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근성의 힘 '극과 극'을 시즌 상대 전적 KIA 3승 13패 열세

이와는 달리 KIA는 완전히 거꾸로다. KIA가 20일까지 기록한 전체 65패 가운데 40%가 역전패였다.

시즌부터 아쉬웠다. KIA는 3월39일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김상훈의 시즌 프로 야구 1호 홈런을 앞세우고도 3-4로 역전패 당했다. 4월11일 사직에서 시작된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3경기 모두 역전패를 당하는 등 역전패로만 4연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65패의 40%인 26패가 역전패인 반면 역전승은 14차례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시즌 내내 다른 행보를 한 두 팀의 차이는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맞대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회말 1점을 뺏은 KIA는 이어진 2회 아쉬운 홈승구와 상대의 희생플라이로 곧바로 1-2로 역전 당했다. 선발 양현종은 이날 7이닝동안 3피안타 7탈삼진 3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1회 3개를 안타를 뽑아냈던 타선은 이후 단 1개의 안타를 추가하는데 그치며 그대로 경기를 마감했다.

팀이 1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SK 선수들의 플레이는 돋보였다. 몸을 아끼지 않고 1루 슬라이딩도 불사하지 않는 데다 무서운 집중력으로 끝판왕 수비를 선보였다. 하지만 허슬 플레이와 근성이 사라진 KIA 선수들에게 초반 실점은 패배와 직결됐다.

시즌 내내 KIA는 덕 아웃에 만연한 패배주의, 위기에서 그대로 무너져내리는 끈기 부족과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 한마디로 '근성'의 차이가 올 시즌 완전히 다른 두 팀의 성적표를 작성한 셈이다.

/김여울기자 wood@kwangju.co.kr

## 두산(2위), 롯데(3위)에 4연승...2게임차로 벌려

막판에 강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롯데 자이언츠를 4연패 늪에 빠뜨렸다. 두산은 21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08 프

로야구 롯데와 방문 경기에서 12안타를 퍼부은 끝에 11-2로 이겼다. 2위나 3위나 갈림길에서 사직 3연전을 쓸

어담은 두산(66승49패)은 롯데(65승52패)와 승차를 2게임으로 벌리며 플레이오프 직행 희망을 키웠다.

두산 선발 이해찬은 5이닝 동안 7안타 2실점 역투로 6승(4패)째를 거뒀고, 이승호-이재우-진아균이 뒷문을 틀어막았다.



21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두산 경기에서 롯데 팬들이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사직구장은 올 시즌 20번째 '만원관중'을 기록했으며 누적 관중 130만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 '구름 관중' 부럽다 롯데 매출 '쑥쑥'

### 사상 첫 한 시즌 130만명 돌파

롯데 자이언츠가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관중130만명을 돌파했다.

롯데는 2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홈경기에서 관중 3만명이 입장함에 따라 시즌 누적 132만6천213명의 관중 입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한 구단이 단일 시즌에 관중 13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는 지난 19일 두산과 홈경기에서 누적 관중 126만6천213명을 기록하며 1995년 LG 트윈스가 기록한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126만4천762명)을 갈아치웠다.

롯데는 이와 함께 두산과 3연전에서 모두 3만석 매진을 기록하며 시즌 20번째 만원 사례를 이뤘다. 롯데는 19일부터 단일 시즌 최다 매진(3만석 이상 구장) 기록도 이어가고 있다.

### 입장료 등 100억 넘어 역대 최고

프로야구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쓴 롯데 자이언츠가 구단 매출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롯데에 따르면 올해 8년 만의 최고 성적을 앞세워 관중 수입과 TV 중계권료, 구장 광고, 상품 판매, 매점 운영 등 5개 분야에서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입장 수입이다. 이날까지 홈경기 60경기에서 129만명을 동원한 롯데는 관중 수입으로만 모두 67억2천만원(19일 기준)을 벌어들이었다. 여기서 방문 구단에 배분해야 하는 등 28%(18억8천여만원)를 제외한 뒤 방문 경기에서 벌어들인 액수(9억1천만원)를 더하면 롯데가 현재까지 올린 순수한 입장 수익은 57억5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중계권료(10억여원)를 합치면 롯데가 지금까지 올린 매출액은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올린 액수를 제외하고 100억원을 넘는다고 /연합뉴스

## 신지애 악천후 때문에 '으악'

2R 단독 선두 불구  
폭우로 경기 취소  
마지막날 아쉽게 2위 그쳐

#### 김하늘 시즌 3번째 우승



### ■ SK 인비테이셔널 최종

김하늘(20·코요롱·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신지애(20·하이마트)를 꺾고 시즌 세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김하늘은 21일 경기도 이천 BA비스타골프장(파72·6천471야드)에서 악천후로 인해 2라운드 축소된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마지막날 신지애와 접점을 펼친 끝에 4언더파 68타를 쳐 함께 9언더파 135타로 2타차 승리를 거뒀다.

상금 1억원을 보낸 김하늘은 시즌 상금 3억4천300만원을 쌓았다. 신지애는 지난 20일 8번홀까지 4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 나섰지만 악천후로 취소되는 바람에 대회 마지막날 3언더파 69타를 치면서 공동 2위(7언더파 137타)로 밀려 아쉬움이 더했다.

1라운드 선두였던 이정은(20·김영주골프)은 전반에 3타를 잃어 우승권에서 밀려나는 듯 했지만 후반에 4타를 줄이는 저력을 발휘, 함께 7언더파 137타로 신지애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4주 연속 우승을 노리던 서희경(22·하이트)은 2타를 줄이는데 그쳐 5언더파 139타로 공동 4위에 머물렀다.

2위로 출발한 김하늘과 3위로 출발한 신지애는 12번홀까지 8언더파로 동타를 이뤄 우승권의 향방을 짐치기 어려웠다.

김하늘은 13번홀(파3)에서 티샷을 홀 1m 옆에 붙이며 버디에 성공, 9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지만 우승까지는 갈길이 멀었다.



21일 경기도 이천 BA비스타 골프장(파72·6천471야드)에서 악천후로 인해 2라운드 축소된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마지막 날 1번 홀에서 신지애가 멋진 티샷을 날리고 있다. 신지애는 후반 부진으로 아쉽게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김하늘은 14번홀(파4)에서 두번째샷이 워터 해저드에 빠져 1벌타를 받고 4타만에 그린 위에 올라와 1타를 잃어 신지애에 다시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신지애는 17번홀(파4)에서 3퍼트 실수로 1타를 더 잃어 김하늘을 추격할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김하늘은 마지막 18번홀(파4)을 차분하게 파로 마무리하며 2타차 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 이승엽 이틀 연속 홈런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32)이 이틀 연속 홈런포를 재가동하며 피살아난 타격감을 보였다. 이승엽은 21일 도쿄돔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즈와 경기에서 5회말 2루타에 이어 3점 홈런(시즌 7호)을 터뜨렸다. 이승엽은 이에 앞서 20일에도 3-0으로 앞선 1회말 첫 타석에서 시즌 6호인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 김대섭 '부활 샷'

### 김대섭과 연장 접전 끝

### KEB 인비테이셔널 우승



잊혀져가던 골프 신동 김대섭(24·삼화저축은행·사진)이 3년 만에 정상에 우뚝 서며 부활을 알렸다.

김대섭은 21일 강원도 횡성 오스타골프장 남코스(파72·6천652m)에서 열린 한국-중국 골프투어 KEB인비테이셔널 2차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김대현(20·동아회원)과 연장전 끝에 우승컵을 안았다.

고교생 시절이던 1998년과 2001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한국오픈을 두 차례나 제패했고 2002년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3승이나 올렸던 김대섭은 2005년 한국프로골프 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슬럼프에 빠져들어 작년에는 한번 밖에 '톱10'에 들지 못했다.

올해 네 차례 '톱10'에 입성하며 재기의 조짐을 보였던 김대섭은 SK텔레콤과 제계약에 실패해 또 다시 선수 생활에 중대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아마추어 시절 후원자였던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의 배려로 삼화저축은행 로고를 달게 된 김대섭은 2개 대회 만에 우승컵으로 보은했다. 연장전에서 미션홀골프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받았다.

확정되자 김대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첫날부터 3라운드까지 선두를 질주한 끝에 최종 라운드를 5타차 선두로 시작한 김대섭이지만 우승컵은 천신만고 끝에 거머쥌 수 있었다. 5번홀(파4) 트러플보기, 14번홀(파4) 더블보기 등 실수가 겹치면서 17번홀까지 5타를 잃어버려 2타를 줄이며 함께 8언더파 280타로 먼저 경기를 끝낸 김대현에 1타 뒤진 2위로 밀려났다.

18번홀(파5)에서 상상력 넘치는 그린 공략으로 1.2m 버디 기회를 만들어낸 김대섭은 김대현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가는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다. 18번홀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김대섭은 두 번째샷을 그린 옆 bunker에 빠뜨렸으나 멋진 bunker샷으로 홀 2.5m 옆에 볼을 떨어뜨린 김대섭은 2m 버디 퍼트를 실패하면서 우승이